

- 주요 뉴스: 세계은행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위험 증폭
 -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 내년 하반기 연준의 금리인상을 예상
 - 미국 10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29만건으로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
 - 중국 정부,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억제를 유지.恒大그룹 사태는 통제 가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지속

주가 상승[+0.3%], 달러화 강세[+0.2%],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양호한 기업실적과 주간 고용지표 개선 등이 견인
유로 Stoxx600 지수는 일부 기업의 실적부진과 중국恒大그룹 우려 등으로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이 반영
유로화가치는 0.2% 하락, 엔화는 0.3%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간 고용지표 개선 등이 반영되며 5월 이후 최고 수준
독일은 미국 국채금리와 연동하며 3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179.2원, +1.1원) 0.1% 상승, 한국 CDS 보합

		10/21일	10/20	전일대비			10/21일	10/2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549.8	4,536.2	0.30%	국채 금리 10y	미국	1.70%	1.66%	4bp
	유럽	469.71	470.07	-0.08%		독일	-0.10%	-0.13%	3bp
	중국	3,594.8	3,587.0	0.22%	CDS 5y	한국	19bp	19bp	0bp
	일본	28,709	29,256	-1.87%		중국	48bp	47bp	1bp
	한국	3,007.3	3,013.1	-0.19%	위험 지표	EMBI+	-	369	-
환율	달러지수	93.77	93.56	0.22%		VIX	15.01	15.49	-3.10%
	유로화	1.1623	1.1651	-0.24%		WTI유	82.50	83.87	-1.63%
	엔화	113.99	114.31	0.28%	원자재	구리	455.5	473.5	-3.79%
	위안화	6.3932	6.3930	0.00%		금	1,782.9	1,782.1	0.05%
	원화	1,177.2	1,174.2	-0.2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세계은행,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위험 증폭

- 금년 전세계 에너지 가격은 8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다수의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 다만 2022년 하반기부터 공급 차질 등이 완화되면서 에너지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전망을 반영하듯 10/21일(목) 미국 국채 10년물과 5년물의 기대 인플레이션 (break even inflation)은 각각 2012년 9월, 2005년 5월 이후 최고치. Bloomberg는 5년물 국채 움직임이 2022년 2회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
- BMO의 Ben Jeffery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다고 언급. 또한 향후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직면하여 위험자산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시해야 한다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애틀랜타 연은 총재, 내년 하반기 연준의 금리인상을 예상

- 보스틱 총재는 공급 차질과 노동력 부족뿐만 아니라 강력한 소비 수요 등이 결합되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2022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연준의 월러 이사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연준이 보다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 현재 8조 달러 수준에 이르는 대차대조표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 2년 동안은 이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 10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29만건으로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

-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전주(30만건) 및 예상치(29만6000건)를 모두 하회. 시장에서는 연방정부의 특별실업급여 종료와 노동자의 구직 의지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동수요 증가로 고용주는 직원 해고에 매우 신중하다고 분석

■ PIMCO, 미국 경제성장은 델타 변이 확산 둔화 등으로 다시 강화될 전망

- Tiffany Wild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여행, 숙박, 레저 부문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고용도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 이에 따라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경로는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

■ 중국 정부,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억제를 유지. 헝다그룹 사태는 통제 가능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부동산 부문 전체의 신용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설명. 오히려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억제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
- 한편 9월 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1.87%(3.6조위안)로 6월(1.86%) 대비 소폭 상승. 시장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지속과 대출상환지원프로그램의 종료 등을 이번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 다만 부실대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IMF, 중국은 경기둔화에 대응할 정책 도구를 보유

- 리창용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중국의 금년 성장률이 8%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레버리지 축소 노력과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 년 간 성장 둔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 한편 헝다그룹 관련 위험은 통제 가능하다고 평가

■ 일본은행, 은행시스템은 안정적이나 차입비용 증가 등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

- 은행시스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회복이 지체되면 차입비용이 증가할 소지. 또한 전반적으로 신용위험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일부 포트폴리오의 경우 코로나 19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진단

■ 터키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리라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사상 최저

- 기준금리인 7일물 레포(Reop) 금리를 2%p 낮춰 16%로 결정. 시장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평가. Commerzbank는 이번 결과로 리라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경제도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0/2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23.8, 9월(30.7), 예상치(25)
- 미국 9월 기존주택판매(만건): 629, 8월(588), 예상치(610)
- 유로존 10월 소비자신뢰: -4.8, 9월(-4), 예상치(-5)

■ 주요 경제 이벤트(10/2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및 유로존 10월 마켓 종합 PMI(속보치), 프랑스 3/4분기 성장률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주요 자산가격의 상승, 장기적으로 중국 리스크를 경계할 필요 - 블룸버그

(Happy Mood Music in Markets Is Ignoring China Troubles)

- 최근 미국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다수의 암호화폐 가격도 상승세 유지. 하지만 성장 둔화, 긴축 정책 선회 가능성,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다양한 악재가 상존. 특히 중국 문제는 심각한 상황
- 중국 3/4분기 성장률은 4.9%로 코로나 19 여파가 컸던 2020년을 제외하면 30년래 최저 수준. 이는 전력난과 코로나 19 재확산이 주요 원인. 부채 과다로 인한 신용제한 및 각종 규제책 등 정치적 위험도 내재
- 중국 경제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동산 부문의 현저한 둔화 역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이러한 중국 리스크가 자산가격에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투자자들이 주의해야할 요인

■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기존 경제 및 산업의 과소투자 등을 반영 - Financial Times

(The revenge of the old economy)

- 현재 원자재의 부족 현상은 코로나 19의 여파와 상관관계가 높지 않으며, 금융위기 이후 만성적인 투자 부족에 기인. 부채와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기존 경제시스템보다 신경제를 선호하는 시장의 움직임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 중국의 석탄생산량 감소 등은 알루미늄과 원유 공급 부족으로 연결. 에너지 부문에 대한 장기 투자와 친환경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 등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은 지속될 전망

■ 중국 헝다그룹의 자산매각 난항,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반영 - WSJ

(Evergrande Is Struggling to Sell Homes—and Its Assets)

■ 준비가 미흡한 기후 변화 대응, 고물가 지속 등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 - 블룸버그

(Shunning Fossil Fuels Too Soon May Prove Catastrophic)

■ 세계적인 임금상승 압력 증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중 - Financial Times

(Global wage pressures add to inflation fears)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